

since 1986

SUNBO FAMILY

2012년 사업계획 | 해양 및 육상모듈 전문 초우량 상장기업

2012년 6월 15일

vol. 101

World Best
SUNBO FAMILY

선보공업(주) 선보유니텍(주) 선보하이텍(주)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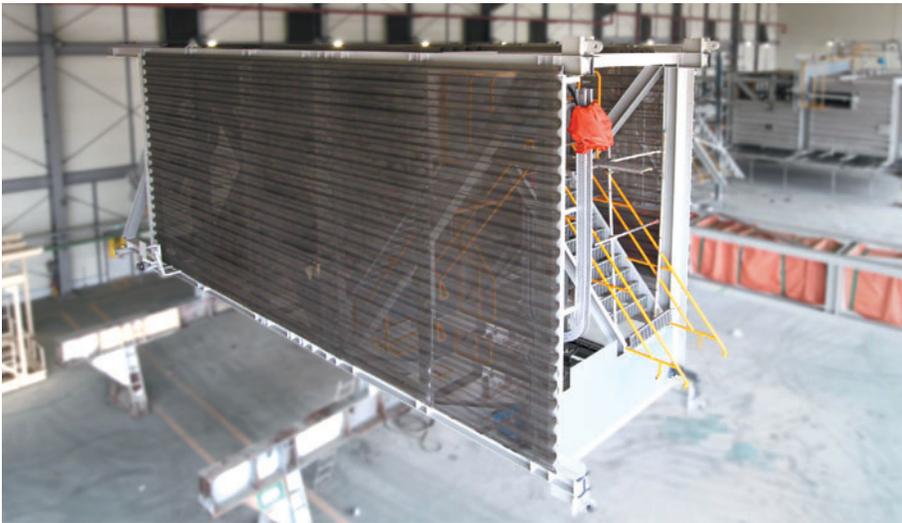
대표전화 051. 261.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17-2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대우조선해양과 체결한 H6046 성공적 납품 준비 완료

[해양 프로젝트 대형 철의장 공사에서 우위 점할 계기]



우리 회사는 (주)대우조선해양과 체결한 'H6046 ; ARKUTU-DAGI FIELD DEVELOPMENT PROJECT'의 성공적인 납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약 500톤급 STAIR TOWER 11SET를 납품하는 계약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준비되어 왔다. 오는 7월 중순까지 납품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생산관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선보유니텍 강보영 상무는 "이번 프로젝트는 일반 상선 철의장 공사가 아닌 해양 SPEC을 적용한 공사로 우리 회사의 해양공사 수행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찾아 중간 점검을 마친 대우조선 관계자들은 매우 만

족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라며 성공적인 생산과 납품을 확신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겨울의 강추위와 거센 바람을 극복하여 금번 PROJECT의 성공적 납품에 일조한 주식회사해남 관계자 및 작업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설계부서에서 파견되어 프로젝트에 참가한 이철훈 계장은 "당사에서 처음으로 접해보고 경험한 FIRE-WALL(화재 발생시 화염으로 인한 화재확대를 방지하고 비상시 탈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화염보호용 철판), CLADDING(STAIR TOWER의 작업자 이동시 안전하게 STAIR를 통행 하도록 하는 안전 방지 철판) 설치와 용접작업이 기존에 작업해오던 방식의 제품이 아니라 선주 공급품이며 설계와

자재 MAKER가 외재재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도면해독 → 자재입고 → 용접 → 설치에 이르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하나 담당자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무사히 공사를 수행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준공된 감전공장에서 처음으로 STRUCTURE 제작, 도장, 의장설치로 납품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게다가 'H6046 ARKUTU-DAGI FIELD DEVELOPMENT PROJECT'는 우리 회사에서 수행한 해양 관련 대형 철의장 중 가장 큰 규모이다. 따라서 이번 해양 프로젝트 대형 철의장 공사의 성공적 수행으로 유사 제품의 입지에서 큰 우위를 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리 회사 최금식 대표 "이 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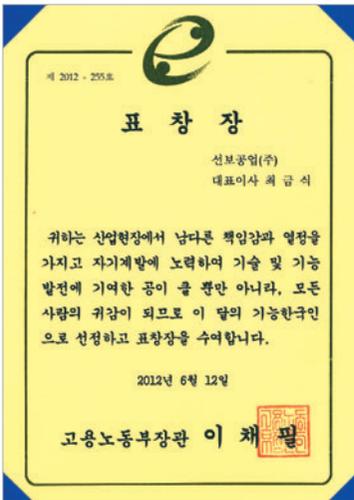


우리 회사 최금식 대표이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012년 6월 "이 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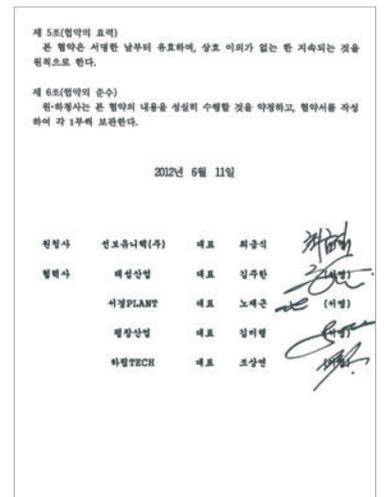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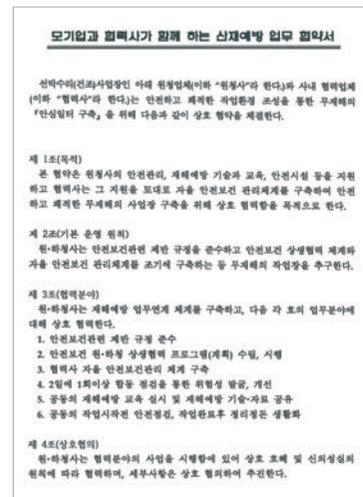
'이달의 기능한국인' 예순 여섯 번째 수상자인 최금식 대표는 30여 년간 선박 모듈 유닛(Module Unit) 개발에 매진, 선박 의장품 분야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게 되었고, 조선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기술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을 바탕으로 오늘에 이른 최금식 대표이사는 기능인 후배들에게 "누구나 도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우수한 기능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기능인이 되려면 부단한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차원이 아니라 그 기술로 자신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라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최금식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중장기 교육체계를 세워 핵심기술인력 양성에 힘쓰는 한편, 우리 회사의 해양플랜트 분야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모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하는 산재예방 업무 협약서 체결



우리 회사는 지난 6월 11일, 태성산업(대표 김주한), 서경PLANT(대표 노재근), 평창산업(대표 김미령), 하람TECH(대표 조상연) 등 4개의 사내 협력업체와 '모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하는 산재예방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다. 원청사인 우리 회사는 안전관리, 재해예방 기술과 교육, 안전시설 등을 지원하고 협력사는 그 지원을 토대로 자율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무재해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이번 협약서로 날로 중요도가 증대되는 안전에 대한 전사적인 의식을 고취할 수 있게 되었다.

RUN SUNBO RUN 회사안전

안전의 최우선은 「기본 지키기」

사업장의 안전 = 품질 안정 = 생산성 향상 = 회사의 안정적 성장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면서도 확실한 길은 기본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다. 과거 대형 사고들은 모두 기본을 지키지 않아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던 점을 떠올리면 기본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낄 수 있다.

「기본」에 충실해야 안전이 「튼튼」*

흙을 조잡하게 갈면 농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대중 지어서는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 수 없다. 대중으로는 감동을 줄 수 없는 법이다. 어떤 분야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안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대중’으로는 ‘완벽한 안전’을 바랄 수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도 기본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다시 거론하기조차 싫은 이야기지만 삼풍 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 과거 대한민국을 사고공화국으로 만들었던 대형 사고들도 모두 하나같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다. 100-1=0이다. 적어도 안전에 관련한 그렇다. 아무리 잘한 부분이 많더라도 한 가지 실수가 오랫동안 쌓아올린 그 모든 노력을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후진적 재해이다. 이들 재해의 대부분은 안전수칙 위반이나 안전교육 소홀 등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한다. 이 경우 언젠가 일어날 재해가 그때 일어났을 뿐이다. ‘안전’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사업장에서는 안전 칸막이, 안전 통로, 안전대, 안전 사다리 등 각종 안전장치들을 설치함으로써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 모든 것들이 일단의 기본인 셈이다.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설비의 지속적인 확충과 작업공정의 개선 등은 기본에 충실하려는 노력들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엄청나*

일단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귀한 인명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재해보상금 지급액이 2003년 2조 5천억 원 규모에서 2009년 3조 4천억 원 규모로 늘었다는 분석이다. 불과 5년 사이에 38% 증가한 것이다.

간접적인 손실까지 포함한 경제적 손실은 2008년도에 17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1.7%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노사분규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연간 3조 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5배를 능가한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안할 때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는 더 이상 비용이 아니다. 기본에 대한 충실이자,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경영활동의 일환이다. 산업안전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는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산성 제고와 근

로자들의 애사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안전」 지키는 것이 곧 경쟁력*

산업재해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의 불행은 물론 기업, 나아가서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다. 지난 2008년은 노·사·정 대표가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선언서는 정부, 사업주, 근로자 등 사회 각 주체가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무재해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하다. 산업재해로 인해 하루 7명꼴로 귀한 생명이 사라지고 있다. 1년이면 2,400명이나 된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 근로자들의 노력으로 산업재해가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숫자는 현실을 말해주는 진실이다. 안전은 인간존중의 기본이다. 근로자와 경영진 모두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전은 활력 경영의 초석이다. 기본은 안전의 또 다른 이름이다. 기본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다. 글로벌화 기본 위에서만 가능하다. 안전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은 간단하다. 기본에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 ‘사업장의 안전=품질 안정=생산성 향상=회사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도식은 안전에 관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변의 진리이다. 기본에 충실한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다.



Happy Together
에피 투게더

푸른 하늘을 가슴에 안고
낙동강변을 달린다



「하프마라톤대회 참가」

우리 회사 임직원들은 지난 5월 20일 국제신문이 주최하고 부산육상경기연맹과 부산사회체육센터, 부산마라톤연합회가 주관하는 ‘2012부산하프마라톤대회’에 참가해 푸른 5월의 아름다운 강변을 달렸다. 부산 유일의 국제공인코스에서 벌어진 2012부산하프마라톤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내로라하는 달리기꾼 1만여 명이 모여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과시했다.



이번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우리 회사 임직원은 총 90명으로 5.10km코스에 59명이, 10km코스에 31명이 출전했다. 이번 대회 ‘최다참가상’ 부문에서 우리 회사는 동아고등학교와 다선중학교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 회사 최금식 대표이사과 곽종렬 부사장께서 직접 현장에서 달리는 직원들을 응원해 대회는 임직원들이 하나되는 한바탕 축제가 되었다.



야구와 함께
스트레스를 학 날려라~



「팔도프로야구 단체관람」

우리 회사 임직원들은 지난 5월 9일과 5월 16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2012 팔도프로야구’를 단체 관람했다. 매 회 200장의 관람티켓을 마련해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 것. 우리 회사의 프로야구 단체관람은 직원 복지 향상과 가족친화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원들의 호응이 큰 행사이다. 5월 9일 롯데와 삼성의 경기는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삼성에 3대 0으로 패했고, 16일 경기에서도 넥센에 패하고 말았다. 경기를 관람한 한 직원들은 아쉬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스트레스를 날리고 가족과 함께한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평하며 회사의 이러한 복지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호응에 힘입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문화 공연 관람을 지원할 예정이다.



SUNBO LIFE 추천여행지

「생명의 땅」에서 살아있는 자연을 느껴요

여수엑스포로 떠나는 1박 2일 가족여행, 여수 ~ 순천

20012여수세계박람회가 6월 초 100만 관람객을 돌파했다. 1993년 대전엑스포 이후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엑스포로 8월 12일까지 계속 된다. 올 여름에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열리는 여수엑스포를 살살이 훑어보고 '생명의 땅' 순천의 생태공원에서 살아있는 자연을 만끽해보자.



1 볼거리 즐길거리 넘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부산에서 출발하면 엑스포장까지는 3시간이 조금 넘게 걸린다. 엑스포장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은 아름다운 주변 환경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서쪽 끝 여수만과 오동도를 배경으로 자리 잡은 다양한 전시관과 바다 위에 등실 떠 있는 해양베스트관, 잔잔한 파도와 쪽빛 바다는 한 폭의 그림이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바다를 통해 지구 생태계와 사람이 서로 어울려 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접할 수 있다. 첨단 운송 선박의 개발,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 심층수 해양자원 개발, 해양오염방제, 해양보안 및 안전시스템 등의 첨단 기술이 그것.

공간 곳곳의 볼거리도 다양하다. 거대한 파이프오르간 형태의 스카이다워, 뉴미디어 버라이어티쇼와 100여 개 참가국가의 문화공연 무대인 빅오(The Big-O), 갯지렁이와 따개비를 닮은 바다 위의 주제관, 다도해를 상징하는 국제관 등이다. 박람회장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거대한 건축 예술을 접할 수 있는 흥미로운 장소이다.



2 생태관광의 메카인 순천만에서 자연을 만나

여수엑스포 관람을 마친 후 40~50분 정도 이동하면 넉넉하고 풍요로운 순천을 만날 수 있다. 남해 쪽으로 돌출한 두 개의 반도, 즉 여수반도와 고흥반도 사이에 위치한 순천만은 우리나라 제일의 갈대군락지이자 세계 5대 연안습지의 하나다. 2006년에는 그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국제습지조약인 람사르협약에 등록되기도 했다. 대대포구에서 생태체험선을 타고 물길을 따라가며 순천만이 품고 있는 다양한 생명들을 만나게 된다. 갯벌에는 짙은 갈대, 농계, 칠계, 갯지렁이를 비롯하여 다양한 염생식물들이 서식한다. 체험선 두 대가 번갈아 다니는데 자연환경 해설사가 동승하며 왕복 약 35분이 소요된다.

순천만의 또 다른 명물인 갈대열차를 타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된다. 갈대밭 사이를 달려 순천이 낳은 두 명의 문학가, <무진기행>의 김승옥 작가와 <오세암>의 고정채봉 작가의 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순천문학관까지 다녀올 수 있다.



[이 달의 책]

홍차, 느리게 매혹되다



- 지은이 : 최예선
- 발 간 : 모요사
- 반양장본 • 356쪽

당신은 오늘도 인스턴트 커피처럼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커피 대신 홍차에 주목해보자.

홍차에는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무엇보다 여유가 녹아 있다. 홍차는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다. 홍차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도 한 권의 책으로도 홍차의 여유를 느껴볼 수 있다. 최예선의 <홍차, 느리게 매혹되다>는 홍차를 끓이는 물에서부터 크리스마스나 허니문 등 특별한 날에 즐기는 홍차에 이르기까지 홍차를 둘러싼 소소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았다. 저자는 차잎의 세부적인 명칭이나 도교, 파리, 런던의 유명 티룸과 티숍을 방문한 아지자기한 경험까지 자신의 티 라이프(Tea Life)를 세세하게 기록해 담았다. 이 책은 '겨울에서 봄'에서부터 '다시 겨울'까지 5부로 구성되어 다양한 홍차의 맛과 홍차를 우아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준다. 우리나라에 처음 홍차가 소개된 시기, '애프터눈티와' 하이티의 유래, 홍차를 즐긴 문인들, 세계 3대 홍차, 세계의 유명 티룸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홍차에 대해 더 많은 책을 보고 싶다면
www.aladin.co.kr

다양한 홍차를 가볍게 즐기고 싶다면
www.tea-holic.co.kr

RUN SUNBO RUN 우수 협력사 탐방

「열정과 믿음으로 뭉친 젊은 기업」 - 수광메탈 | 변영재 대표



2010년 7월 설립된 수광메탈(대표 변영재,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은 워터젯 가공 스테인레스스틸, 카본 스틸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우리 회사와는 창업과 동시에 거래를 시작한 회사이다.

수광메탈을 이끌고 있는 변영재 대표는 13년간 스테인레스파이프 제조업에 몸을 담았던 현장 전문가이다. 영업소장을 거쳐

2008년 조선회사 본부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사람이 기업을 키운다.”는 철학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변 대표는 “무엇보다 저는 구성원의 열정과 믿음으로 기업이 커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웬지 전사행정같이 보일 것 같아 특별히 사훈같은 걸 걸어두지는 않습니다. 오직 사업자등록증이 저희 회사를 말해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열정과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말대로 수광메탈에서는 사업자등록증만이 사무실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회사와 직원들의 긍지가 느껴졌다.

특이하게도 변영재 대표는 직원들에게 항상 때가 되면 독립하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대표의 마인드는 직원들에게 강한 동기를 부여한다. 개인적인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을 대하는 직원들은 업무 성과도 향상된다고 한다.

“선보공업은 협력사를 많이 보호해 주는 기업입니다. 또한 가장 멋지고 부러운 부분은 직원교육 등에 대한 많은 투자입니다. 또 선보는 구매를 멋지게 하는 기업이지요. 양질의 제품을 비싸지도,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싸지도 않은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하며 협력사와의 상생을 지향하는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창업하기 이전에 몸담았던 DS 제강에서도 선보공업과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선보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상당히 컸습니다. 2009년 카본스틸파이프 원자재파동이 있었을 때는 3개월치 자재를 한꺼번에 구입해 두고 3개월간 가격을 고정해서 거래를 한 적도 있습니다.”라는 변 대표는 우리 회사 최금식 대표이사가 거래처를 직접 다니며 독려하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

사실 변영재 대표는 2년 전, 3천만 원이라는 적은 자금으로 창업을 했다. 하지만 계속

수주 물량이 늘어나고 매출 규모도 증가해 내년에는 200여 명 규모의 사옥으로 이전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그는 수광메탈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기업, 오랫동안 가족처럼 기쁜 일도 함께 슬픈 일도 함께하는 기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를 바란다. 현재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작은 부품 하나도 납품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수광메탈의 미래가 밝아 보인다.



RUN SUNBO RUN 생생 현장의 소리



구평공장 | 이상진 반장(생산부)

「 현장은 작업자 안전을 항상 우선으로 합니다 」

저희 생산부는 도면을 받아 파이프 등 의장품을 설치해서 유니트를 생산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간관리로서 도면, 자재, 설계문제 등을 살피고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챙겨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Q. 회사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업무효율의 개선은 일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항상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회사도 직원들도 늘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저희 생산 현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Q.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생각해 보니 저는 현장 동료들과 업무 외에는 함께 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서로 결속력을 다져서 안전한 현장에서 최고의 능력을 올리는 생산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면을 빌어 저를 믿어주는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Q. 현장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현장은 항상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빠른 일처리를 위해 서두르다 보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귀한 한 명 한 명의 작업자를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도 절대 다쳐서는 안됩니다. 무재해 현장을 목표로 늘 안전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Q. 입사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2000년 12월 입사하였습니다. 작년 4개월 정도 개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기간 외에는 계속 선보에 몸 담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보니 어느새 13년째 접어드네요.

Q. 현장에서 하시는 주된 업무가 무엇인가요?

RUN SUNBO RUN 칭찬 릴레이



출하준비반 | 최봉순 사원

「 작은 일 하나에도 정성을 담아 애정으로 출하 준비를 하겠습니다 」

때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진심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Q. 언제 입사하셨나요?

2006년 6월, 선임 팀장님의 추천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7년째인데 저를 멋진 회사 선보로 이끌어 주신 분들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보에 뼈를 묻을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Q. 칭찬주자로써 앞으로 마음가짐이 있다면?

더욱 더 고함을 질러야겠습니다(웃음). 더 열심히 한다는 뜻입니다. 작은 일 하나 하나에 정성을 담겠습니다.

Q. 칭찬주자로써 출하준비반을 칭찬하자면?

싱가폴 출신의 외국인노동자 두명과 함께 일합니다. 항상 자기 일을 알아서 찾아하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오랫동안 함께 해 온 만큼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같은 생각이 듭니다.

Q. 다음 주자를 추천해주세요.

조경선 팀장님을 추천합니다. 저처럼 고함도 많이 지르지만 여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서도 일은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Q. 칭찬릴레이 주자로 뽑히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작업하면서 매일 싸우듯이 항상 고함을 지르며 독려하는 저를 칭찬주자로 뽑아 주시니 부끄럽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하는 저희가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함인데

생일 축하합니다

다대공장

개발설계2팀	김재래 (6.09)
구매	정성욱 (6.27)
전산	이동하 (6.23)
품질	문경준 (6.12)
	이지영 (6.08)
설계	이현우 (6.12)
1공장	김동섭 (6.01)
금천산업	최판조 (6.18)
2공장	이경호 (6.25)
	윤헌문 (6.05)
	김민수 (6.23)

구평공장

생산관리	김지훈 (6.26)
평창산업	김규도 (6.29)
	육이진 (6.07)
보성산업	정병용 (6.08)

감천공장

설계	허정모 (6.12)
----	------------

영도공장

품질보증	김지훈 (6.14)
생산관리	이정훈 (6.17)



입사 기념일

다대공장

전산	안정빈 (6.03)
설계	박황수 (6.23)
	최진영 (6.23)
1공장	김동섭 (6.01)
	김대관 (6.09)
	안태주 (6.19)
	김형원 (6.24)
2공장	김종민 (6.02)

감천공장

QA	문건우 (6.20)
	송성규 (6.01)
설계	유시호 (6.10)

다른 그림 찾기 A와 B를 비교해 서로 다른 부분 5곳을 찾아보세요

